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6.(월) 17:00 배포 2026.11.16.(월) 11:00

개인정보위,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 주도

- 제48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및 제51차 유럽평의회(CoE) 총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감독기구 역량 강화 등 논의 주도
- 일본·아일랜드·네덜란드·브라질 등 주요국 감독기구 및 구글·메타 등 빅테크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48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lobal Privacy Assembly, 이하 'GPA')」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GPA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의체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감독기구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과제를 공유하고, 각국 감독기구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7명의 GPA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서 총회의 주요 논의를 이끌어간다. 신규 회원기관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GPA의 2027년~2030년 전략계획 이행 워크숍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직접 기획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DPAs in the AI Era)' 세션에 패널로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 수립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흥국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PC),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AP), 브라질 개인정보보호청(ANPD)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양자 면담도 진행한다. 신기술 대응 등을 위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과 협력 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개인정보 관계자들과도 만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과제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GPA 총회 이후 이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되는 제51차 유럽평의회(CoE)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도 참석한다. 유럽평의회는 1981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제108호 협약을 제정한 이후 별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참관인(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회에서 송경희 위원장은 한국의 인공지능 혁신 지원 정책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소개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알랭 베르세와도 만나 개인정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주요 다자간 협의체 참여와 주요 기관·기업과의 밀착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글로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구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민지	(02-2100-2481)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2-2100-2484)
			주무관	도승희	(02-2100-2486)
			주무관	이민서	(02-2100-31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